

일리인이 들려주는
책의 역사



백지 위의 검은 것



미하일 일리인 글
박수현 그림





글을 쓴 미하일 일리인

러시아의 아동 문학가이며 과학 소설가로, 1895년 러시아 돈 강 연안의 보로네즈 시에서 태어났으며, 본명은 일리야 야코블레비치 마르샤크입니다. <인간의 역사> <책상 위의 태양> <시간을 담는 그릇> <기계의 역사> <자연의 정복> 등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이 읽어도 흥미 있는 훌륭한 글을 많이 발표하여 전세계로부터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글을 엮은 박수현 선생님

중앙대학교 영문과를 졸업하고, 창작 집단 '바리'에서 좋은 어린이 책을 기획, 번역, 창작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창작 동화 <바람을 따라갔어요>를 펴냈으며, <터비네 파티> <뚜뚜에게 친구가 생겼어요> <벨벳은 유별난 친구래요> <스튜어트 리틀> <또르르 팔랑팔랑 귀여운 곤충들> <왜요?> <출동 검은 손 탐정단> 등 많은 책을 번역했습니다.

하나. 맨 처음 책



'세상에서 가장 오래 된 책'을 찾으러 돌아다니던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도서관으로 달려갔지. 그리고 싹누렇게 낡아서 곰팡이가 핀 책을 들추시고 다녔단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도 좀처럼 찾을 수가 없었어. 그 사람은 과연 '맨 처음 책'을 찾아 내는 데 성공했을까? 찾았다면 지금 내가 읽고 있는 이 책은 맨 처음 책의 몇 번째 손자에 해당할까?

“주인님, 용서해 주십시오. 일리아스는 배가 아파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하하. 살아 있는 도서관에 있는 살아 있는 책이다 보니 그렇게 아프기도 했나 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쯤에나 있었음직한 이야기지.

하지만 책이 뻑뻑하게 낫힌 도서관이 어엿하게 자리잡은 오늘날에도 우리는 살아 있는 책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단다.

만약 우리 모두 책에서 모든 걸 배울 수 있다면 굳이 학교에 갈 필요도 없을 거야. 책에서 다 배울 수 있는데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설명해 주시는 선생님이 왜 필요하겠니? 하지만 책에 대고 궁금한 걸 물어 볼 수는 없잖아. 선생님은 살아 있는 책이나 마찬가지로 언젠지 네가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를 자상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지만 말이야.

이렇게 살아 있는 책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우리에게 도움을 준단다. 하지만 살아 있는 문자는 이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 살아 있는 문자가 뭐냐고? 종이나 컴퓨터에 쓴 글자가 아니라, 사람 입을 통해서 전달되는 글자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운 거야.



우체부 아저씨를 떠올려 보면. 옛날, 글자를 쓸 줄 몰랐던 시대에는 우체부 아저씨가 있을 리 없었지. 편지도 없었을 테니까 말이야. 대신 중

호메로스가 처음 《일리아스》를 지었을 때, 그는 이야기를 담보 쓰는 대신 노래로 들려주었다.

요한 소식을 전해야 할 때 사람들은 글이 아니라 말로 전해 줄 사자를 보냈다.

지금도 그런 사자가 있다면 어떨까? 하루에 수천 자를 기억해서 어찌고 저찌고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말로 옮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예를 들어서 네 생일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렴. 그런데 어떤 사람이 너를 찾아왔어. 문을 열었더니 처음 보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저는 당신에게 말 편지를 전하러 왔습니다. 잘 들어 보세요. 사랑하는 친구야, 생일 축하한다. 네가 무슨 선물을 받고 싶어하는지 모르겠구나. 공룡 모형을 살까, 디지털 스티커를 살까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야. 이따 저녁에 갈 테니까 맛있는 것 많이 많이 줄 거지? 나는 치킨도 먹고 싶고, 피자도 먹고 싶고…….”

너는 아마 깜짝 놀라서 말문이 막혀 버릴 거야. 하지만 친구가 전하라는 말을 전부 머릿속에 쑤셔 넣은 가없는 말 편지 배달 아저씨는 나사 풀린 기계처럼 계속 중얼중얼 지껄이겠지.

어머니, 살아 있는 문자라는 게 오늘날에는 얼마나 우습고 불편하게 전락했는지 알 수 있겠지? 아주아주 오랜 옛날에는 그렇게 소식을 전할 수 밖에 없었지만 말이야.

기억을 도와 주는 방법들

내가 아는 할아버지 얘기를 해 줄까? 참 부지런하고 인자한 할아버지야. 여든 살이 훨씬 넘었는데 누가 봐도 깜짝 놀랄 만큼 젊어 보이는 분이잖아. 눈은 너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뺨은 장밋빛이며 걸음걸이도 젊은 사람 들처럼 활기차. 한마디로 모든 게 훌륭하지.

그런데 딱 한 가지가 문제야. 기억력이 몹시 떨어진다는 점이란다. 그 할아버지는 불일을 보러 나가다가도 대체 무슨 일을 하러 가는지 잊어버리는 날이 많다. 특히 사람 이름 까먹는 데는 선수야. 심지어는 내 이름도 깜박할 때가 많단니까. 나랑 그 할아버지랑 알고 지낸 지 벌써 몇 년이나 되었는지도 말아야.

할아버지도 자신이 가진 약점을 아주 잘 알고 있어. 그래서 누가 부탁

이라도 하면 잊지 않으려고 무지 애를 쓰시지. 묻고 묻고 또 물어서 똑똑히 기억해 두려고 해. 그리고 진짜 잊지 않으려고 손수건에 매듭까지 지어 놓는단다. 그래서 할아버지 손수건은 늘 매듭투성이야. 할아버지한테는 그 매듭이 글자나 마찬가지인 셈이지.

하지만 그 매듭도 별 소용이 없어. 매듭이 열두 개나 있으면 뭘 하겠니. 그 매듭 하나하나가 무슨 뜻인지 전혀 기억해 내지 못할 때가 많은데 말이야. 그러니까 하얀 것은 종이로 까만 것은 글자라는 것만 알지, 그 글자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경우인 거야.

사실 그래. 아무리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할아버지의 손수건처럼 매듭으로 쓴 문장. 그러니까 매듭 글자로만 엮어진 책을 보고 그 뜻을 기억해 낸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일 거야.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매듭을 만들 때, 매듭 하나하나마다 어떤 문자나 단어를 뜻한다고 미리 정해 놓았다면 사정은 달라지겠지. 오른쪽으로 끈 매듭은 '가' 자고, 왼쪽으로 끈 매듭은 '나' 자라는 식으로 말이지.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할아버지의 매듭을 보고 대신 뜻을 파악해서 알려 드릴 수도 있지 않겠니?



노인은 매듭 손수건으로 기억력을 보완하려고 했다. ▣

진짜로 그런 매듭 문자를 쓴 시대가 있었다. 사람들이 글자를 사용하기 전 일이지. 옛날 중국이나 페르시아, 멕시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매듭을 이용해서 기록을 했다. 특히 남아메리카의 케추 사람들은 매듭 문자를 만드는 솜씨가 아주 뛰어났어. 지금도 케추의 양치기 가운데에는 매듭 언어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니 그 솜씨를 짐작할 수 있겠지?

매듭 문자를 한번 살펴볼까? 먼저 막대기에 온갖 색깔로 물들인 끈들을 묶은 다음 그 끈으로 갖가지 매듭을 만드는 거야. 매듭이 막대기 가까운 곳에 묶여 있을수록 중요하다는 뜻을 담고 있었지.

검은색 매듭은 죽음을 뜻하고 흰색 매듭은 은이나 평화를 상징했어. 붉은색은 전쟁, 노란색은 황금, 녹색은 곡물, 그리고 전혀 색깔이 없는 매듭은 숫자를 뜻했단다. 그리고 홑겹 매듭은 10, 이중 매듭은 100, 삼중 매듭은 1,000을 가리켰지.

하지만 아무리 미리 정해 놓았다고 해도 매듭 문자를 해독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 끈의 굵기, 매듭의 형태, 매듭의 나열 상태를 주의 깊게 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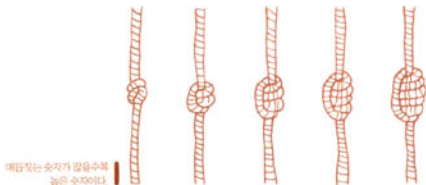


■ 케추의 매듭 문자

퍼야 했거든. 그래서 마치 아이들이 가나다라를 익히듯이 그 부림의 페루 아이들은 매듭의 가나다라를 배워야 했어. 그 사람들의 매듭 가나다라를 '큐비파' 라고 했단다.

그런가 하면 북아메리카 원주민 부족 가운데 하나였던 휴런족이나 이로쿼이족 사람들은 매듭 대신 갖가지 색깔로 물들인 조개껍데기 염주를 문자로 사용했어. 조개껍데기를 실에 꿰어 조그맣고 간단한 염주를 만든 다음 그것들을 실 하나로 묶었지. 그 사람들은 그 몇 줄짜리 염주로 셈본 같은 것을 만들었대.

그 경우에도 검정색은 즐겁지 못한 일, 곧 죽음, 불행, 두려움을 뜻했어. 흰색은 평화를, 노란색은 황금이나 공물을, 붉은색은 전쟁이나 위험을 뜻했고 말이야. 뭔가 생각나는 게 없니? 잘 관찰해 보면 그 색깔들이 나타내는 의미는 오늘날까지 살아 있단다. 흰 깃발을 봐. 옛날처럼 지금도 흰 깃발은 평화의 표시란다. 검은색은 장례의 표시이고, 붉은색은 위협의 표시로 사용되지.



매듭짓는 순서가 같을수록
높은 순차이다

해군에서는 지금도 깃발로 가나다라를 만들어 낸단다. 배들끼리는 뜻에 걸린 깃발을 보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지. 철도 신호는 또 어머니? 거기서도 색깔은 옛날 것과 같은 뜻이란다.

하지만 매듭 문자처럼 색깔 조개도 정확하게 읽어 내는 일은 어려웠어. 부족 추장들은 조개 염주가 가득 들어 있는 자루를 갖고 있었지. 일 년에 두 번, 이로쿼이족 젊은이들은 추장에게 조개껍데기의 비밀을 배우기 위해 숲 속의 공터로 모여들었단다.

어느 북아메리카 원주민 부족이 다른 부족에게 심부름을 보낼 일이 있을 때에도 심부름꾼인 사자는 이 색조개 염주, 곧 '왓팜'을 가지고 갔어. 그리고 다른 부족 추장 앞에 도착하면 무지개처럼 일곱 가지 색깔로 빛나는 염주를 받아들여 올리며 이렇게 말했지.

“추장님, 제 말을 듣고 이 조개껍데기를 보아 주십시오!”

왓팜은 일일이 말로 설명하지 않으면 뜻을 제대로 전달하기 힘들었던단다. 예를 들어 실 하나에 하양, 노랑, 빨강, 검정 이렇게 네 가지 색깔을 가진 조개껍데기가 매달려 있다고 해 보자. 그런데 그 색깔만 보고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어. 한번 볼까?



■ 색조개는 색에 따라 그 뜻이 달라진다.

“만약 당신들이 우리에게 공물을 바친다면 우리는 동맹을 맺을 것이다. 하지만 동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싸워서 당신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이번에는 두 번째 해석이야.

“우리는 강화를 바라고 있다. 강화를 위해서 우리는 당신들에게 황금을 줄 용의가 있다. 만약 전쟁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멸망하고 말 것이다.”

어때. 똑같은 완팜인데도 전혀 다른 뜻으로 읽힐 수 있지? 그런 실수와 오해를 막기 위해서 조개껍데기 편지를 쓴 사람이 직접 들고 가서 큰 소리로 읽었던 거야. 그러니까 완팜은 오늘날처럼 완벽한 편지 노트를 할 수는 없었다는 뜻이지. 그보다는 사람의 기억력을 도와 주는 도구였다고 보는 편이 좋아. 심부름꾼이 먼 길을 가다 보면 전달할 말을 깜박하거나, 헛갈릴 수도 있잖나. 그럴 때 완팜을 보면 떠나기 전에 한 번 들었던 말이기 때문에 확실히 기억을 살릴 수 있겠지.

이처럼 사람의 기억을 도와 주는 것은 무척 많단다. 막대기에 칼자국을 새긴 것도 그 가운데 하나야. 이를테면 가족 무리 가운데 섞여 있는 양의 마릿수나, 자기가 갖고 있는 밀가루 포대 수 따위를 계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막대기에 칼자국을 냈어.

세르비아 농부들은 지금도 장부책이나 계산서 대신



막대기에 칼자국을 그려 횡수를 표시했다. ■

나무토막을 사용한다. 한 농부가 상인한테서 외상으로 밀가루 네 포대를 샀다고 하자. 그 때 영수증을 쓰는 대신 껍질을 벗겨 낸 조그만 나무 토막에 기다란 칼자국 네 개와 조그만 칼자국 하나를 새겨 넣는 거야. 그러고 나서 나무 토막을 세로로 쪼개 한 쪽은 상인에게 주고 다른 한 쪽은 자기가 보관하는 거지. 빛을 갈을 때에는 반으로 쪼갠 나무 토막을 서로 합치면 돼. 그러면 절대로 속이는 일은 일어날 수 없지. 칼자국이 바로 빛의 역수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야.

그 방법은 로빈슨 크루소가 무인도에서 사용한 달력과 똑같은 종류라고 생각하면 된다. 옛날 서부의 악당들이 사람을 죽이고 돈을 뺐은 다음 총 위에 칼자국을 냈던 것도 비슷한 의도였어.

너도 혹시 나중에 잊지 않고 기억하려고 흔적 같은 걸 남겨 놓은 일은 없었니? 학교 벽이나 마당가에 있는 나무 같은 데다 말이야. 있다면 지금 한번 확인해 보렴. 아주 먼 옛날 북아메리카 원주민이 된 기분을 느낄 수 있을지도 몰라.



■ 선사 시대의 원주민도 손목 뼈에 홈을 새겨 약속의 표시로 삼았다.

물건으로 뜻을 전한 편지

근 매듭과 조개껍데기 얘기를 듣고 무슨 생각을 했니? 솔직히 좀 까다롭고 복잡했지? 실제로 그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매우 현명한 사람들이 있어야 했어. 그런데 여러 가지 사건을 기록으로 남기거나 통신을 보내는 데에는 그보다 훨씬 더 간단한 방법이 있었단다.

어떤 부족이 다른 부족에게 선전 포고를 할 때는 창 한 자루나 화살 한 개를 보내면 끝이었어. 그 선물이 퍼버린내 나는 물건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었으니까 말이야.

만약 전쟁이 아니라 강화, 곧 전쟁을 멈추고 화해를 하자고 의논하고 싶을 때는 담배와 파이프를 보냈단다. 북아메리카 원주민 부족들 사이에서 파이프는 평화를 뜻했거든.

살아 있는 책

문제 하나 낼까? 이 책. 지금 네가 읽고 있는 바로 이 책 말이야. 이 책은 이 세상에 나온 책 가운데서 몇 번째 책일까? 천 번째? 만 번째? 아니면 구억 칠천오백삼십육 권째? 흠. 아무래도 너무 힘든 문제지?

그렇다면 세계에서 가장 처음 만들어진 책은 어떤 것일까? 지금처럼 이렇게 인쇄된 것이었을까? 아니면 연필로 하나하나 쓴 책일까? 종이를 만든 책일까? 아니면 나뭇잎이나 형겔 같은 다른 재료로 만든 것일까? 만약 맨 처음 만들어진 책이 아직까지 남아 있다면 어느 나라, 어느 도서관에 있을까?

옛날에 어떤 사람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 된 책'을 찾으러 도서관을 온 통 뒤지고 돌아다녔대. 가장 오래 된 책이니 가장 많이 낡았을 거라고 생

강화 회담을 하기 위해서 만나면 서로 적으로 대치하던 부족의 주장들이 야영장 모닥불 주위에 빙 둘러앉았지. 그리고 한 주장이 파이프 담배에 불을 붙여 한 모금 피운 다음 옆 사람에게 건네 주었어. 모두들 엄숙하게 입을 다물고 있는 사이에 평화의 파이프는 둥글게 앉아 있는 사람들 사이를 한 바퀴 도는 거야.

이렇듯 문자를 사용하기 전에는 사람들이 갖가지 물건으로 편지를 만들었다. 고대 남부 러시아의 시이리아 사람들이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를 살펴보자. 참, 시이리아는 흑해 북쪽 연안에 있던 나라였어.

그들은 작은 새 한 마리와 쥐 한 마리, 개구리 한 마리와 화살 다섯 개로 된 편지 한 통을 보냈었다. 이 괴상망측한 편지가 뭘 뜻했는지 알겠니? 바로 이런 뜻이었어.

“페르시아인들이여! 당신들은 새처럼 날고, 쥐처럼 땅 속에 숨고, 개구리처럼 늪을 뛰어넘을 수 있는가? 만약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우리와 전쟁을 하러 오는 것 따위는 하지 마라. 우리는 당신들이 이 나라에 발을 들어 놓는 순간 화살을 퍼부을 것이다.”



북아메리카 원주민들에게 창과 화살은 전쟁용, 담배 파이프는 평화를 뜻했다.

어머니, 오늘날의 편지와 비교하면 정말 재미있지?

만약 네가 어느 맑고 시원한 날 소포 하나를 받았다고 하자. 그런데 그 안에 선물 대신 죽은 개구리나 뭐 그 따위가 들어 있다면 기분이 어떻겠니? 누가 이런 기분 나쁜 장난을 했나. 하고 조금 언짢은 기분이 들 거야. 하지만 누가 설마 싸움을 기는 편지라고는 생각도 못 하겠지.

이렇게 너한테는 물건으로 된 편지가 괴상망측하게만 보일 거야. 하지만 글자가 없었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지금 우리가 주고받는 편지며 문서 따위가 오히려 괴상하게 여겨질지도 몰라.

이번에는 문자가 무엇인지 몰랐던, 한 아프리카 원주민에 대한 얘기를 하나 들어 볼래?



대양 쥐, 개구리 그리고
화살로 표현한 고대
사이버아인의 편지

종이는 고자질쟁이

옛날에 삼보라는 흑인 청년이 있었다. 그는 태어나서부터 그 때까지 한 번도 백인을 본 일이 없었어. 우리에게 흰 새가 희귀하듯이 그에게는 백인이 무척이나 희귀한 존재였지. 그러던 어느 날, 삼보는 드디어 백인을 발견했어.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떼를 지어 나타난 백인들.

백인들은 부락으로 쳐들어와서 삼보를 비롯한 힘센 젊은이를 몽땅 붙잡아 멀리 바다 쪽으로 끌고 갔어. 그러고는 바다 위를 달리는 커다란 집, 곧 배에 가두었지.

하루가 지났어. 그리고 또 하루, 그렇게 여러 날이 지난 뒤 드디어 그들은 육지에 도착했어. 하지만 그 곳은 삼보의 고향과는 딴 세상이었다.

삼보는 흰 돌로 지은 커다란 집으로 끌려갔어. 그 곳에는 흑인들이 무

척 많았지. 다 똑같은 흑인 친구들이었는데 서로 고향은 달랐어. 삼보는 잭슨인지 뭔지 하는 관사의 하인으로 고용됐단다. 관사는 붉은 수염을 길렀는데 말도 못 하게 짜증쟁이었어. 삼보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구두를 닦고 머리카락을 쥐어뜯기 일쑤인 꼬맹이 주인 아들을 돌보고, 뚱뚱한 요리사가 하라는 대로 시장에 심부름을 다녀야 했지. 어느 날 마님이 삼보를 부르더니 이렇게 말했어.

“삼보야, 이걸 주인 나리한테 갖다 드려라.”

마님은 바구니 하나랑 조그만 종이 쪽지를 건네주었어. 바구니 속에서는 맛난 냄새가 폴폴 올라왔단다.

심부름을 가는 도중에 삼보는 도대체 이렇게 맛있는 냄새를 풍기는 게 뭔지 궁금해서 바구니 속을 슬쩍 들여다보았어. 와, 통닭이 여러 마리나 들어 있었단다. 바구니가 꼭 차도록 말이야.

‘관사 나리가 이걸 전부 드실까? 한 마리쯤 없어져도 모르겠지?’

삼보는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한 마리를 넌름 먹어치웠어. 그러고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재판소로 갔지. 관사는 종이 쪽지를 잠깐 보고 나서 바구니를 들춰단다. 그리고 다시 종이 쪽지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어.

“근데 한 마리는 어디 있지? 바구니 안에는 세 마리밖에 없잖아. 또 한

마리는 어디 갔어?”

삼보는 깜짝 놀라고 말았단다.

‘아니, 이 벌어벽을 쪽지가 나를 쳐다보고 있었을까? 아니면 이 종이가 판사 나리한테 말을 하는 걸까?’

생각해 보니 통닭을 먹는 동안 종이 쪽지를 지니고 있었다는 걸 알아챘어. 그래서 삼보는 앞으로 음식 심부름을 갈 때는 조심해야겠다고 마음먹었지. 그 종이 쪽지를 말아야.

며칠 뒤, 주인 마님은 또 같은 심부름을 보냈어. 이번에는 통닭을 먹기 전에 종이 쪽지를 둘 밑에 감춰둔다. 그 앙큼한 것을 잠깐 잠재운 거야! 이번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할 게 틀림없었어. 삼보는 마음 폭 놓고 통닭을 먹어치운 다음 종이 쪽지를 다시 꺼내 들고 가벼운 마음으로 재판소로 갔단다.

그런데 이 벼락맞을 놈의 종이 쪽지에 귀신이라도 붙어 있었을까? 분명



“이 녀석이 고자같이지 분라도
눈을 가려이잖어.”

히 돌 밑에서 잠을 잤던 너석이 삼보의 장난을 전부 다 판사한테 일러바
쳤지 뭐야? 삼보는 호되게 야단을 맞았어. 주인 나리에게도, 마님에게도,
심지어 똥보 요리사한테까지도, 야단을 안 친 사람은 주인 아들뿐이었지.
그 너석은 항상 그렇듯이 삼보의 넓은 등판에 올라타서 이라 이라, 말놀이나
하고 있었어.

어때, 삼보 너석 참 명칭하지? 하지만 머리가 나빠서 그런 건 아니야.
종이며 글자를 몰랐을 뿐이지.

아무튼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종이를 발명하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렸단다. 종지와 글이 있기 전에 사람들은 말하는 편지를 생각해 냈지.
파이프는 평화를 말하고, 창은 전쟁을 말하고, 팽팽하게 잡아당긴 활은 공
격을 말했어. 그 말하는 물건들은 그로부터 수천 년 세월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말하는 종지로 발전할 수 있었던단다.

각했나 봐. 그래서 싹누렇게 낡아서 곰팡이가 핀 책들이 산더미처럼 쌓인 곳을 더 유심히 살폈지.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낡은 책을 찾아 내려고 몇 날 며칠씩 책더미를 파헤쳤대. 옷이며 신발이며 먼지투성이가 되었지. 그러다가 결국 그 사람은 책장에 기대어 놓은 높은 사다리에서 떨어져 죽고 말았단다.

만약 그 사람이 죽지 않고 백 년쯤 더 살았다면 어땠을까? 찾아 냈을까? 아니야. 그는 정말 어리석은 짓을 했던 거란다. 아마 천 년, 만 년을 더 살았다고 해도 못 찾아 냈을 테니까 말이야. 왜냐고? 세계 최초의 책은 그 사람이 태어나기 수천 년 전에 이미 써서 버렸기 때문이야. 아니, 죽어 버렸다고 해야 옳겠구나.

맨 처음 책은 지금 있는 책과는 형태가 달랐단다. 그 책은 팔 다리를 갖고 있었지. 책꽂이에 꽂혀 있지도 않았어. 대신 말을 하고 노래를 부를 줄 알았지.

아하, 이제 알겠니? 그 책은 살아 있는 책, 곧 '사람 책'이었던 거야. 수천 년 전 사람들은 글자를 쓸



이르침볼도가 그린 《도서관 사서》(1593년). 책을 재치 있게 배치하여 사람처럼 그려 냈다.

줄 몰랐어. 대신 우리보다 훨씬 더 기억력이 좋았단다. 나이 든 사람들은 진짜 살아 있는 책이나 다름없었지. 오랜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머릿속에 저장해 두었다가 술술 들려주었으니까 말이야. 아주 어렸을 때 들은 이야기들을 잊지 않고 기억했던 거야.

나이가 들면 누구나 죽어, 늙은 이야기꾼도 마찬가지지. 하지만 사람은 죽어도 이야기는 계속 살아 있었단다.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 할아버지에게서 손자에게로 되풀이되며 살아남았지. 그리고 그 이야기는 되풀이되는 사이에 조금씩 변해 갔단다. 어떤 이야기는 보태지기도 하고, 또 어떤 이야기는 없어지기도 하면서, 흐르는 물이 돌을 때그럽게 만들듯이 이야기도 흐르는 시간에 따라 때그럽게 뒤여 갔단다.

이런 식이었지.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되는 이야기였어.

“옛날, 옛날 숲 속에 아주 용감한 추장이 살았단다. 추장은 활과 창을 자유자재로 다루어서 당할 사람이 없었어. 추장이 늙어 죽을 때까지 부족에는 평화만 가득했는데…….”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 이야기는 이렇게 변해 갔단다.

“옛날, 숲 속에 아주 용감한 추장이 살았단다. 추장은 날아오는 화살도 피할 만큼 날쌔지. 마침내 추장은 거드랑이에서 날개가 돋어나 독수리가

되어 하늘로 날아갔단다.”

정말 재미있지?

넓고 넓은 세상의 구석구석에는 지금껏 한번도 붓으로 쓰인 적이 없는 이야기를 얘기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직도 있단다.

그런가 하면 이야기를 아름다운 노래로 부르는 사람도 있었어. 옛날 그리스 사람들은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 곧 그리스 사람과 트로이 사람들이 치른 전쟁 이야기를 좋아했대. 그 이야기가 글로 옮겨지기까지는 무척 긴 세월이 필요했지. 그 전에는 주로 노래를 통해 이야기가 전해졌어.

특히 에이도스라는 가수가 있었는데 어찌나 노래를 잘했는지 술자리마다 빠지지 않고 초대받는 가수였단다.

그림을 보면서 에이도스가 노래하던 그리스 시대를 떠올려 볼까?

에이도스는 높은 기둥을 마주보고 앉아 있다. 언제나 갖고 다니는 조그만 하프, 리라는 못에 매달려 있었다. 이윽고 주연이 끝났다. 고기며 빵이 가득 담



그리스 가수 에이도스는 사람들에게 노래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겨 있던 바구니도 텅 비었고 금정반에 있던 술잔도 사라졌다. 손님들은 몹시 취했다.

손님들은 이제 노래를 듣고 싶어한다. 이윽고 에이도스가 악기를 켜면서 게략이 뛰어난 오디세우스 왕과 용감한 군인 아킬레스에 대한 위대한 노래를 시작한다. 손님들은 눈을 지그시 감고 에이도스의 노래에 빨려들어간다.

에이도스의 노래는 대단히 훌륭했다. 하지만 우리의 책은 훨씬 더 훌륭해. 왜냐고? 책값만 있으면 어느 서점에서든 주머니 안에 쏙 들어가는 <일리아스> 한 권을 살 수 있기 때문이지. 우리의 책은 먹지도, 마시지도 않을 뿐더러 아무것도 욕심내지 않고, 병에 걸리거나 죽는 일도 없으니까. 그렇지?



<일리아스> 중 한 대목을 그림으로 표현한 트로이 전쟁 속마의 빛속에서 그리스 연합군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살아 있는 도서관

책이 있으면 도서관도 있는 게 당연하지. 그런데 옛날에는 살아 있는 책이 있었으니, 살아 있는 도서관도 있었을까?

옛날 로마에 이테리우스라는 부자가 살고 있었다. 집도 엄청나게 커서 로마 사람 전체가 들어갈 수 있었다니 놀랍지 않니? 그 집, 황금빛 비단이 덮인 테이블 주위로 저녁마다 삼백 명쯤 되는 사람들이 모였다는구나. 모두들 신분이 높고 학식이 있는 시민들이었지.

그 때는 맛있는 음식뿐만 아니라 재미있는 이야기로 손님을 대접하는 풍습이 있었다. 그리고 그 즈음에는 손으로 베껴 쓴 책도 있었어. 잔칫집 주인은 재미있는 얘기로 손님들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 책을 무척 많이 읽는 게 유행이었던대.

이테리우스 집에도 책이 많았어. 하지만 그 사람에게도 없는 게 있었단다. 많이 배우지 못해서 책을 잘 못 읽었던 거야. 손님들은 안 보이는 곳에서 그를 실컷 비웃었지.

그는 견딜 수가 없었어. 하지만 너무 게으른 사람이라 오랫동안 앉아서 책을 읽을 수 없었던단다. 책은 읽기 싫고 비웃음도 당하기 싫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곰곰이 생각했지. 마침내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그는 거느리고 있던 노예들 가운데서 학문이 뛰어난 200명을 뽑았던단다. 그러고는 그들에게 책을 몽땅 외우라고 시켰지. 각자 한 권씩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노예에게는 <일리아스>를 외우라고 하고, 다른 노예에게는 <오디세이아>를 외우라고 한 거야.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한 권을 통째로 외우는 일은 쉽지 않았단다. 노예들은 체적으로 맞아 가며 가까스로 주인이 명령을 따랐어. 아무튼, 이제 이테리우스는 굳이 책을 많이 읽지 않고도 손님 대접을 할 수 있게 되었



이테리우스의 살아 있는 도서관은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단다. 바로 살아 있는 도서관을 가진 거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이야.

그 때부터 잔치가 무르익어서 대화 시간이 돌아오면 이테리우스는 눈
짓만 했어. 그러면 말 없이 벽을 등지고 줄지어 서 있는 노예들 가운데 하
나가 나와 적당한 문구를 암송했지. 노예들에게는 자기들이 외우는 책에
따라서 일리아스라든가 오디세이아라든가 하는 이름이 붙었어. 이를테면
<홍부전>을 외우는 노예는 '홍부'라고 부르고, <몽귀랄귀>를 외우는 노예
는 '몽귀'라고 불렀던 거지.

이테리우스의 살아 있는 도서관은 로마에서 아주 인기가 높았단다. 하
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어. 어느 날 뜻밖의 사건이 벌어진 거야. 그 일 때
문에 이 어리석은 백만장자는 온 도시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지.

그 날도 잔치가 끝나고 사람들은 여느 때처럼 교양 있는 이야기를 나누
기 시작했어. 옛날에는 어떤 식으로 술잔치를 벌였는가에 관해서 이야기
하고 있었지. 그러자 이테리우스가 노예들을 관리하는 하인에게 신호를
보내며 말했어.

“그 주제라면 <일리아스> 안에 이름난 문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인은 노예에게 신호를 보내는 대신 무릎을 꿇고 떨리는 목소
리로 말했단다.

1. 돌도끼에서 우리별 3호까지 우리 과학 이야기

전상운 글 | 이상규 그림 | 올컬러 | 208쪽 | 값 8,000원

2. 어린이를 위한 주강현의 우리 문화 ①

도깨비에서 장승까지

주강현 글 | 올컬러 | 224쪽 | 값 8,000원

3. 어린이를 위한 주강현의 우리 문화 ②

구들에서 방아까지

주강현 글 | 올컬러 | 216쪽 | 값 8,000원

4. 밥 힘으로 살아온 우리 민족

우리의 음식 문화 이야기

김아리 글 | 정수영 그림 | 올컬러 | 234쪽 | 값 8,000원

5. 음식을 바꾼 문화, 세계를 바꾼 음식

세계의 음식 문화 이야기

김아리 글 | 정수연 그림 | 올컬러 | 230쪽 | 값 8,000원

6. 과학의 배꼽 공부가 처음 생겨난 이야기

과학아이 글 | 이삿별 그림 | 올컬러 | 168쪽 | 값 7,500원

7. 백지 위의 검은 것

일리인이 들려주는 책의 역사

미하일 일리인 글 | 박수현 역음 | 올컬러 | 176쪽 | 값 7,500원

8. 시간을 담는 그릇

일리인이 들려주는 시계의 역사

미하일 일리인 글 | 박수현 역음 | 올컬러 | 168쪽 | 값 7,500원

9. 책상 위의 태양

일리인이 들려주는 등불의 역사

미하일 일리인 글 | 박수현 역음 | 올컬러 | 144쪽 | 값 7,500원

아이세움 배움터 시리즈 는

어린이를 위한 인문 과학 총서입니다.

참된 지식을 알아가는 기쁨과,

새로운 세계를 향한 지적 모험이 함께하는

아이세움 배움터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집니다.

일리인이 들려주는
책의 역사

백지 위의 검은 것



형체 없이 입으로 전해진 책, 딱딱한 돌 책, 돌돌 말린 리본 책, 관자 속의 말랑말랑한 밀랍 책, 무두질한 가죽 책, 남은 서초와 나무를 뿔아 만든 종이 책……, 이것들이 다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날 백지 위에 검은 글자를 얹어 낸 책들이입니다. 이런 책들을 다 누가 만들었나요? 러시아의 아동 문학가 일리인 아저씨도 그게 궁금했나 봐요. 그리고 그 과정을 살펴본 아저씨는 오늘날의 책이 어떤 한 사람의 힘으로 짠 하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 어름 없는, 인류의 수많은 조상들이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바꾸기 위해 아주 오랫동안 힘을 합쳐 개발하고 발전시켜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일리인 아저씨는 그것을 여러분에게도 알려 주고 싶어서 이렇게

아주 재미난 책으로 써 냈습니다. 좀더 편리하고 효율적인



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온 사람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일리인 아저씨와 함께 만나리 가요.

값 7,500원



9 788937 812484
ISBN 89-378-1248-7